

SK, BTX 전환 촉매기술 수출

프랑스 악센스와 협력계약 ... 미국 특허 이어 20개국 신청

SK가 자체 개발한 촉매기술이 세계로 수출된다.

SK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열분해가솔린 최적활용(APU)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7월6일 프랑스의 촉매·공정 기술판매기업인 악센스와 사업협력계약을 맺었다.

APU기술은 나프타분해공장에서 나오는 톤당 400-500달러의 저가 부산물인 열분해가솔린을 원료로 톤당 800-1000달러의 BTX(벤젠·톨루엔·자일렌)을 제조할 수 있는 촉매기술이다.

악센스는 앞으로 세계 석유화학공장에 SK가 개발한 APU 공정과 촉매를 판매하고, SK는 악센스로부터 기술판매 로열티와 함께 촉매 판매이익금을 받게 된다.

SK는 1998년부터 3년간 약 5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APU기술을 개발했으며 미국 특허는 이미 취득했고 현재 세계 20여개국에 특허를 출원중이다.

<화학저널 2005/07/08>